



Corporate profile

# The Glocal Infra Tech Service



우리의 첫 아스팔트 포장

"폭 2~3m, 길이 약 300m,  
발주 금액은 불과 50만엔뿐이었다.  
상당한 적자를 각오해야 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이 일을 맡은 것은  
아스팔트 포장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창업자 니시야마 마사시

저희가 업계의 신참이었을 무렵부터,  
「직절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걸어 왔습니다.  
고장의 도로 포장 업체에서 인프라 그룹 기업이 된  
지금도 소중한 말입니다.

나라를 초월해도 「인프라의 동네 의사」로 있고 싶다.  
생활에 밀착하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간다.

호기심과 「인프라 마을 의사」로서의 프라이드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 Doctor of Infrastructure



# Road Pavement Division

도로 포장 사업



품질에 구애된 길 만들기  
우리의 길 만들기에는 자부심이 있다



## 고속도로 등 대형 공사에서 집 주차장까지

에히메의 포장업체로서 장엄한 아이덴티티를 소중히하고 고장의 포장업자로서 개인고객에서 고속도로, 해외 국도포장공사까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컬러포장이나 우레탄 포장 등 특수 포장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길이라는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선유지 업무는 물론 재해 시의 도로 재개 작업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중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에는 숙련된 작업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 더 좋은 것을 만들기에 대한 고집

창업伊始, 저희는 끊임없이 「더 나음」을 지향해 왔습니다. 유럽 각지에서의 공동 연구, NASA에서의 미끄럼 저항에 관한 연구, 리쓰메이칸대학·홋카이도대학·국토교통부와의 연구사업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탐구심은 현장에서 기능적으로 확실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포장에 관한 전문가인 포장진단사, 시공 전문가인 건설 마스터(국토교통성 인정)가 다수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는 대학을 통해 포장기술 보급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배우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딛고, 기술을 습득해서 전승한다. 우리는 「탐구·실행·습득·전승」의 사이클을 계속 순환합니다.

## 시공 실적



시코쿠 횡단 자동차도 나루토 포장공사 (2015년)



타카마쓰 자동차도로 사누키 히가시카가와 포장공사 (2019년)



육상경기장 트랙 등 개량 공사 (코치시 종합운동장) (2020년)



호조 스포츠센터 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2016년)

## 건설 중장비의 자사 보유 및 자체 유지보수

저희는 오퍼레이터이면서 정비공이기도 합니다. 자사의 기계센터는 운수국 지정 인증공장이고, 건설기기 특정 자체검사는 자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업계에서 서일본 제일의 건설기기보유대수를 자랑하고, 건설기기의 자체 개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운전하기 때문에 알고, 스스로 정비하기 때문에 아는 것. 그 양면에서 건설기기를 숙지. 현장에서의 오퍼레이션 기량은 물론 중장비를 소중하게 오랫동안, 더 잘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키의 건설기기 중에서 오래된 것은 30년 이상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 보유 중장비



아스팔트 피니셔 SUPER1803-2



아스팔트 피니셔 HA60W-8



로드스터빌라이저 PM500



대형 절삭기 로드컷터 ER552F-1



소형 노연절삭기 로드플레이너 CRP-100V



모터 그레이더 MG230



소형 노상 표층 재생기 미니 리믹서 1000



진동 마케터 럴러 MW700-1



진동 타이어 럴러 GW750-2



타이어 럴러 TZ703



로드 스위퍼

# International Division

해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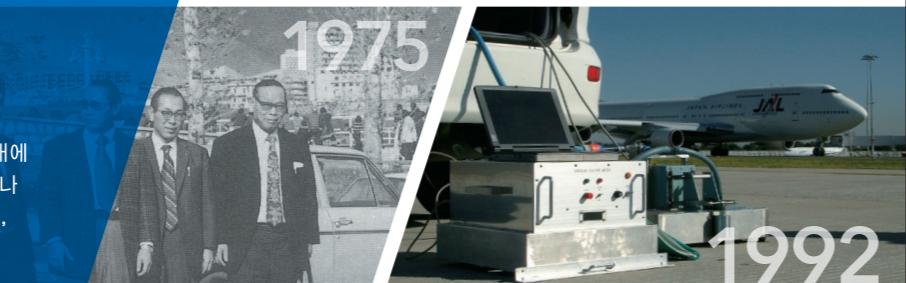
**우리의 원동력은 호기심  
세계에 IKEE의 창조작업을 전달한다**

## 60년 이상 경험으로 쌓아온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이래 키워온 '호기심'을 재현하듯이 저희는 해외에서의 사업전개에 도전해 왔습니다. JICA나 경제산업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도나 캄보디아에서 스태빌라이저 시공을 실시. 현지조사, 배합설계, 기계의 유지보수, 조작 지도에서 시공까지를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길러 온 기술·기능의 보급·발전을 위해 캄보디아 공과대학에서 공동 연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 포장도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포장자재 수출 전천후형 간이 포장 보수재

간이·저렴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개발한 「엑셀·파치」는 열대 지대, 강설 지대, 우천에서도 기재 필요없이 포트 훌 등 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온으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 곳으로 수출이나 비축도 가능. 지금까지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키르기스스탄, 가나, 나이지리아에 수출했습니다. 자재의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방법의 보급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Conduit Division

관로 사업



**노면 아래 관로도  
인프라 마을 의사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지킨다**

## 1. 원격조작으로 관내 영상을 확인

관거 내를 자율주행하는 카메라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 관내 360도 확인 가능.



▲로봇사제 자율주행식 카메라

## 2. 조사보고서 작성까지 완결

영상 바탕으로 파손상황 판별 및 위치정보까지 기록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

## 인프라 마을 의사로서의 자부심

포장 아래에는 다종다양한 「관」이 존재합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에 짜놓을 수 없는 「하수도관」, 도로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인도하는 「노면 배수관」 등. 저희는 최신 IoT 기기를 탑재한 관내 조사용 카메라로 관내 작은 손상도 간과하지 않는 확실한 기술력을 구사해서 조사·진단·계획·수선·개축 일련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마을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로뿐만 아니라 관로 안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쓰야마시나 우와지마시와는 재해협정을 체결하고 재해 때 위생 환경의 복구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관거 간이 공법 후의 관거 내 모양

위생 환경 유지에 빠뜨릴 수 없는 라이프 라인의 하나인 하수도관로, 콘크리트 수명은 50년 정도라고 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하수도 관로 부설 후 50년 이상 경과한 관로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대될 노후화 될 관로를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 「관거 간이 공법」(비개삭공법)으로 재이용해 관로 시설의 수명 연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거 간이 공법 후의 관거 내 모양

### 관거 간이 공법 (올라이너 공법)

1. 기설관 내에 호스를 끌어들인다.
2. 호스 내에 공기를 보내고 호스를 확경, 압착.
3. 호스 내 공기를 가열한다.
4. 호스가 따뜻해지고 경화됨으로써 간성이 형성된다.



※이기는 올라이너 협회 회원입니다.

# Asphalt & Concrete Division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업



좋은 길은 좋은 재료에서  
IKEE 퀄리티를 지탱하는 플랜트맨

## 플랜트 자사 유지 보수

현내에 4개 플랜트를 보유하고 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품질은 물론 제조를 지원하는 플랜트맨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정비공장을 보유하고 옵션에서 판금 가공까지 실행하므로 유지 보수 및 긴급 수리 보수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점검·수리·보수까지 모두 실시해 온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마다 아스팔트 제조는 물론 점검플랜트의 안정·안전한 조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키 플랜트맨은 그 높은 기술력으로 타사 플랜트 정비 수리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에서 경관까지 다양한 요구에 품질로 부응한다



다양한 재활용 자재를 이용한 아스팔트 합재에서 자연석을 사용한 컬러 아스팔트 합재 까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순환형 자원 활용을 위해서 재생골재는 그룹 자체 재활용 기업에서 제품화하여 아스팔트 합재제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사 기술시험실과 연계해서 날씨·소재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무인 카드 출하 시스템 ))

휴일 및 야간에도 출하 대응 가능.  
마쓰야마 아스팔트 플랜트에서는 무인 카드 출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전 연락으로 출하 카드를 작성, 플랜트에 아무도 없는 휴일 및 야간에도 주문하신 아스팔트 합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Environment & Material Division

환경·건자재 사업



「편리하고·신속하게·양질의 물건을」  
건전한 상인의 마음으로 건설 현장을 지탱한다

## 현장 요구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서포트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현장 요구가 아이키 건재 판매에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해서 현지 배달도 실시합니다. 폭넓은 구색,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을 서포트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자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전천후형 간이 포장 보수재 「엑셀·패치」는 에히메현 환경 인정 자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각국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 엑셀·패치 사용방법



## 취급 제품



### ●포장 보수재

전천후형 포장 보수재 (엑셀 패치, 엑셀 피트)  
상온 아스팔트 포장재 (스톡 아스팔트)



### ●초속경 콘크리트

슈퍼제트 콘크리트 중량계량 제어부 배치식 이동  
플랜트 차

# Technical Testing Division

기술 시험 사업



## 지반에서 포장까지 길 조성 서포트

현장과 연계해서 높은 레벨로 길 만들기를 창업 당초부터 탐구해 왔습니다. 현장과 가까운 시험실이면서 해외에 있어도 실지 조사·연구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적·지식은 아이키의 길 만들기에 환원, 지반조사, 내구성·쾌적성을 의식한 적절한 포장 공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재생자원 활용에 대한 대처

아이키 그룹에서는 각사와 연계해서 재생 자원 활용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생 자원 포장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날마다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생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회수수단·회수량·오염물질 제거·분쇄 등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로에서 활용까지 재생 자원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행정·제조업 등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년에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인프라 유지 대처로서 본고장 기업과 연계해서 회수한 페트병 캡을 포장 재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토질 시험 / 재료 시험

### 흙·성토 재

- 흙의 입도 시험
- 흙의 다키기 시험
- 흙의 삼축 압축 시험
- 흙의 투수 시험

### 노반재

- 노반재의 닳음 시험
- 노반재의 액성·소성 한계 시험
- 노반재의 수정 CBR 시험
- 노반재의 체로 가름 시험

## 재료 시험 / 배합 설계

### 골재

- 골재의 체로 가름 시험
-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시험
- 밀도 및 흡수율 시험
- 조골재의 닳음 시험

###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

- 마설 안정도 시험
- 휠 트래킹 시험
- 배수성 혼합물 캔터브로 시험
- 투수성 혼합물 투수 시험

### 배합 설계

- 흙 안정 처리 배합 설계
- 시멘트 유제 안정 처리 노반의 배합 설계
-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 현장 시험 / 포장 조사

### 현장 시험

- 현장 밀도 시험
- 지반 평판 재하 시험
- 간이 지지력 시험

### 포장 조사

- 포장 노면의 평탄성 시험
- 포장 노면의 미끄럼 저항 시험
- 포장 노면의 거칠기 측정

## 품질에 대한 고집

「좋은 것만 만든다,  
좋은 것만 남는다.」

창업 아래, 이 말은 저희 「물건 만들기」에의 고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의 경험은 저희 「기능력」으로서 확실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실지 조사 연구로에서 대학과 연계한 연구 사업에서는 「좋은 것 만들기」를 위해서 지혜를 닦아 왔습니다. 이 고집이 작은 것을 간과할 수 없는 품질 관리에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 국도 5호선 완성까지 3년간의 궤적

경제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는 캄보디아. 국도 5호선은 캄보디아 ~ 태국을 잇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정체 만성화에 더해, 간이 포장 때문에 손상이 많아 사고가 다발. 그 개수 공사는 프놈펜~바탄방 구간 282km! 2018년부터 입찰 준비, 2018년 10월 낙찰, 2019년 4월 착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기간(2019년 12월 초 중국 우한시에서 첫 번째 확진자 보고)을 지나서 2023년 8월 최종 검사, 동년 11월에 개통식이 개최됐습니다. 착공한지 4년 6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개통식은 훈마벳 총리, 대신, 공사 관계자 및 일반인도 참석하여 총인원 1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 해외 도전에서 보인 자신들의 가능성. 어려워 보였던 도전이 앞으로의 아이키의 모습을 만들었다.

### 1. 낙찰까지의 길

**마치다:** 저희 해외 도전은 캄보디아에서 시작됐습니다. 남공구 3건, 중공구 1건으로 패찰이 계속 됐습니다. 일본 입찰과 달리 국제 입찰에는 하한치는 없습니다. 1엔이라도 저렴한 곳이 채용됩니다. 4건 모두 금액면으로 패찰이었어요. 이 국도 5호선 개수 공사 안건은 5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오키모토:** 이번 개수 공사는 포장뿐만이 아닙니다. 토공, 다리, 수로, 박스 등 모든 것이 포함된 내용. 자사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텍肯 건설 님(도쿄에 본사를 두는 종합 건설사)와 공동 기업체(JV)를 구성했습니다. 텍肯 건설만으로도 할 수 없는 서로의 특기 분야를 가져오는 형태였습니다.

**니시오카:** 텍肯 건설과의 JV에는 신기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텍肯 건설 해외소장님이 우연히 저희 대학 동창! 프놈펜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번에 짹을 이를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JV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조물은 텍肯 건설, 저희 회사는 포장이라는 역할 분담으로 입찰에 임했습니다.

**마치다:** 국내 사업으로 JV를 구성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이런 구성을 할 때는 같은 업종의 포장 회사가 메인. 텍肯 건설 같은 종합 건설사와 맷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도로 규격은 일본과 비교해서 디릅니다. 일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출 자료 만들기가 복잡했습니다.

**오키모토:** 같은 시기에 니시오카 씨가 프놈펜에 가서 시공 계획·적산 등의 서류 작성. 프놈펜에서도 3개월 정도 서류 작성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텍肯 건설 체크도 있고 그 후에 영어로 번역(제출 서류는 모두 영어)해서 제출. 아이키 본사에서 마치다 씨와 자, 프놈펜에서 니시오카 씨. 텍肯 건설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프놈펜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개사가 제출해서 기술심사를 통과한 것이 4개사. 그 4개사가 2단계 금액 평가로 넘어갔습니다.

**마치다:** 금액 평가는 참석자 일동이 다 모여서 거기서 결정됩니다. 1차 때는 사장님과 제가 출석 예정이었습니다만 연기가 되어서... 캄보디아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개찰 결과가 나온 날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하라이카와:** 그 때 저는 사내 1층에서 업무중, 갑자기 2층에서 「우와, 아싸」라는 환호성이 들려 왔습니다. 축구 관전에서 일본 대표가 골을 넣은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무슨 소란이야?」라고 물어보니 캄보디아에서 큰 수주를 뒀다고 한다.

### 2. 시공 스타트

**오키모토:** 채용이 됐으니 이제 공사 절차입니다. 실은 입찰하기 전에 다른 공사가 있어서 하라이카와씨, 니시오카씨, 오노니시씨가 캄보디아에 1개월동안 와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의 본시공 전 선행 공사를 보고 3명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라이카와:** 일본 고속도로 신설(4차선)도 10km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규모 공사가 되면 국내에서는 전무합니다.

**니시오카:** 이번 현장 공사는 45km 정도. 차선 수를 카운트하면 260km.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 미지 거리 수의 포장입니다.

**하라이카와:** 저희 현지 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종점까지 약 10km. 현장 기점까지 가면 55km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기점까지 가는 것만 해도 편도 55km. 거기에는 미포장 장소도 있으니까 약 2시간! 정말 멍니다.

**오키모토:** 포장으로 사용하는 합재 양은 마쓰야마 본사가 생산하는 4년분 양을 사용했습니다. 4년분!입니다. 그 만큼 양이 필요했던 공사입니다.

### 3. 공사를 돌아보기

**하라이카와:** 저는 원래 오피레이터로 현장이 중심. 현장에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완성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향후 입찰을 더 열심히 하고 채용율을 올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마다 지금 시공 방법을 바꾸면 더 잘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니시오카 씨와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음 공사에는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니시오카:** 해외도 물론 처음. 가족들의 걱정소리도 있었고 불안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기 직전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일본어를 거의 쓸 수 없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은 할 수 있을지. 그래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벽이 있어도 나는 어떡하든 할 것이고, 어떡하든 된다」입니다. 마쓰야마 공항을 출발했을 때 그 마음만으로 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매일 여러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서 협력을 받고 공사가 진행돼서 무사히 완성. 이런 큰 해외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제 인생 재산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키모토:** 제 역할은 입찰 준비하고 낙찰 후는 운영의 간부들과 자사 대응. 꽤 만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텍肯 건설과 짹을 이룬 것이 성공의 큰 요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현장에서 진흙 범벅, 땀 범벅이 되면서 일한 직원 3명의 존재.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때문에 고생을 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니시오카씨께서 「인생의 재산」이라고 말해주셔서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니시오카씨의 말씀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은 「하면 된다」. 무슨 일이든지 계속하고 있으면 잘 된다. 다음 안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 PROJECT MEMBER



오키모토 마사야기

공무부 해외사업실 과장  
2004년에 입사. 에히메 대학교 공학부 출신. 종합 건설 회사 근무 후 아이키(愛鬼)에 입사. 해외사업실 과장으로서 각국에서 시장조사·신규사업 개척을 행합니다. ODA 등 해외 공사도 담당.



하라이카와 아기라

시공관리부 시공관리과장  
1988년에 입사. 기계 센터, 현장에서 건설 기계 조작으로서 정비까지를 배운다. 아이키 No.1 중장비 전문가. 캄보디아에서는 오피레이터 지도에서 현지에서의 건설기술 수리까지 맡는다.



니시오카 토시

도로사업부 마쓰야마 사무소 과장  
1999년에 대학교 졸업 후 입사. 현장 감독으로서 경력을 쌓다. 캄보디아에는 약 3년 동안 부임해서 현지에서의 시공 관리·지도를 행했다. 현재는 마쓰야마 사무소장으로서 활약.  
집행임원 도로관로영업부장  
1987년에 입사. 경리 등 백 오피스 업무로에서 기계 센터(현·시공 관리부)를 거쳐서 영업 담당으로. 영업 부장으로서 국내외의 공사 입찰에 널리 종사한다.

### 세계에 도전하는 IKEE

각국 학회나 연구 기관과의 현지에서의 공동 연구·기술 개발에 대처.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는 포장 기술 연구나 포장 건설기기 개발.  
중앙 아시아·서아프리카 제국이나 인도 등에 수출 사업.  
등등 국내에서 기쁜 강점을 해외에서 전개하고 각국이나 지역 발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풀 버전은  
웹사이트에서 공개 중▶



여러분 도움을 받고 포장을 통해서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치다:** 세계는 넓은 것 같으면서 좁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텍Ken 건설의 소장님께서 니시오카씨와 대학교 동창이었던 것으로 시작되었고 텍Ken 건설의 입찰 담당 2명도 에히메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회사 영업 과장님은 그들과 마쓰야마 대학교 야구부(에히메현)의 선수배인 것을 알게 돼서 대단한 인연이라고 할까. 세계는 좁구나했습니다. 이것으로 낙찰의 흐름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 후 고생은 지금도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니까 현지 생활은 괜찮을지, 아프지 않을지, 가정은 괜찮을지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정이 가는 공사입니다.

### 4. 해외사업 전망

**마치다:** 앞으로도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상품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주변 제국에 자재 공급, 키르기스스탄에서는 JICA(국제 협력 기구)나 서아프리카에서는 METI(경제 산업성)의 기술 전개 사업 등으로 도로 보수 기술의 전개·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해외)에서의 도전을 로컬(본고장)로 환원해서 로컬 지견을 글로벌에서의 도전에 환원하는 흐름을 가속하고 더 좋은 길 만들기에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길입니다.



IKEE Roots

## Never give up, be humble.

좌절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

Our Spirit

창업자의 말씀

### 공공·환경

포장사업은 공공의 일이다. 그 공공의 일로에서 공해는 절대로 내놓으면 안 된다

### 호기심

기술면에서 또 경영면에서 기타 온갖 면에서 새로운 감각 익혀야 한다.

### 지역

기업은 역량에 따라 사회 환원을 해야 한다.



창업자 니시야마 마사시

1918년에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베마(현·미얀마) 등 격전지에 부임 후 복귀. 고향에 귀성 후 기업의 토목업을 듣는다. 전후 부흥의 흐름 속에서 모터리제이션의 도래를 예기해서 포장 회사 「긴키 포장」(훗날의 아이키)을 창업. 경영으로는 「기업의 신용·사회로의 환원」을 늘 소중히 여기며 사업을 하는 한편 환경·복지·문화면에서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생애에 걸쳐 아이키 정신이 되는 「좌절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의 삶의 방식을 몸소 실천했다.





## 시작은 호기심. 계속 도전하는 회사이고 싶다.

주식회사 아이키 대표이사 니시야마 슈



### 창업은 지역 포장 사업.

### 고속도로 포장 사업을 거쳐서 지금은 해외로 확대.

저희 할아버지께서 후타가미구미라는 회사의 건설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전쟁 후에 아버지께서는 국토 부흥을 지향하여 도로 포장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에는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 거리나 산길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초 회사 「긴키 포장」※. 이후고 현내 전역에 퍼져 업무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긴키(금거북) 건설」로. 창업 50년을 기회로 「아이키」가 되고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12사 15사업부를 전개하는 그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다루는 필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성된 캄보디아 도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도전하는 어려움과 수확이 있었던 3년 동안. 세계에서 기쁜 지혜와 시점은 고장 일로 환원됩니다. 원팀으로 맞선 담당 사원 이야기는 11-12p에 소개돼 있습니다. 꼭 웹사이트에서도 읽어 주십시오.

※마쓰야마성의 별칭은 긴키성. 마쓰야마성 축성 때 산록 해자에 「금색 거북」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전승을 따서 긴키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이름에 영향을 받은 회사명입니다.



1962년 창업자·니시야마 마사시와 본인 (니시야마 슈)

### 최신 기술을 도입한 인프라 마을 의사

해외에서의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원점인 본고장 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지금까지와 같이 정성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함께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공사 질 향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고 곧바로 대응하는 「마을 의사」의 존재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에 완성된 신사옥. 재해시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높은 건물로 지역재해 대피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소중히 해야 할 정신은 좌절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

어떤 회사라도 그대로 계속할 것인지 소멸해 버릴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기존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앞장서서 새로운 필드에 도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좌절 끝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이 깊은 도전일수록 잘 되지 않을 때는 타격이 큰 법입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지름길. 만일 도전이 잘 됐을 경우에도 방심하지 말고 우쭐해지 말고 겨우한 자세는 그대로 다음 도전을 시작합니다 (거만하지 말라).

또 「호기심과 도전」은 강한 회사를 만듭니다. 자신의 감성(후각)이라는 센서를 연마하고 인연이 돼서 만난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의 소중함을 사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패나 좌절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입니다.



### Brand Message

## Japan Quality와 IKEE Quality

시대 변화와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회사 역할은 변화합니다. 회사는 「생명체」입니다. 일본 밖으로 나가 강하게 의식하게 된 「세계속의 일본」이라는 시점과 「일본인이 가지는 도덕관」. 지금까지 쌓아 올려온 일의 퀄리티와 그것을 지탱하는 우리의 도덕관과 근면성을 소중히, 글로벌에서도 로컬에서도 거듭나는 도전과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Mission 기업 이념

- 1 끊어 오르는 호기심
- 2 팽창하는 호기심
- 3 진화하는 호기심

세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공헌합니다.

### Vision 실현하고 싶은 미래

## 길 만들기를 통해서 더 좋은 사회 자본을 만들고 지킨다.

저희 일은, 「길」을 만드는 것. 길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근간 인프라인 길을 만들고 지킨다는 사명감과 함께, 길만들기를 탐구하는 끊임없는 구도심으로 사회기반을 지탱해 나가겠습니다.

### Values 기업 가치관이나 사원 행동 기준

좋은 것만 만든다, 좋은 것만 남는다.



#### 주식회사 아이키

■대표이사 니시야마 슈  
■설립 1957년 4월 26일  
■자본금 4,500만엔  
■종업원수 201명

【본사】 우편 번호 790-0062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미나미에도 2-660-1

TEL 089-921-3030

【사업본부】 우편 번호 791-3131 에히메현 이요군 마사키쵸 오아자 키타가와리 79-1

TEL 089-984-3387

【야외사무소】 우편 번호 796-0031 에히메현 아와타하마시 에도오카 1-5-8

TEL 0894-22-3673

【쿠마코겐사무소】 우편 번호 791-1202 에히메현 가미우케나군 쿠마코겐초 이리노 1090-2

TEL 0892-21-0348

【아이난사무소】 우편 번호 798-4407 에히메현 미나미우와군 아이난쵸 가미오도리 118-1

TEL 0895-73-8882

【도요영업소】 우편 번호 792-0050 에히메현 니이하마시 하규 41-1

TEL 0897-47-1113

【카가와영업소】 우편 번호 764-0018 카가와현 나카타도군 다도쓰초 히가시미나토쵸 11-1

TEL 0877-32-8821

【마쓰야마이스팔트플랜트】 우편 번호 791-3131 에히메현 이요군 마사키쵸 오아자 키타가와리 79-1

TEL 089-984-2260

【니시이요아스콘(오즈)】 우편 번호 795-0021 에히메현 오즈시 히라노쵸 노다 오즈 873

TEL 0893-23-2571

【미카와아스콘】 우편 번호 791-1504 에히메현 가미우케나군 쿠마코겐초 오펀 4378

TEL 0892-56-0677

【잇폰마쓰아스팔트플랜트】 우편 번호 798-4405 에히메현 미나미우와군 아이난쵸 미즈쿠라 2769

TEL 0895-72-1354



